

디지털 시대와 주거선택

박 정 희 (목포대학교 소비자아동주거학과 부교수)

1. 들어가기

디지털이란 말이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첨단 주문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디지털 경영을 선언하고 정부는 모든 공직자는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정보통신부는 주부가 인터넷 강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주부 인터넷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자'는 구호가 유행하더니 이제는 '디지털 강국'을 건설하자고 한다. 이제 디지털이란 말은 더 이상 생소한 말이 아닌 일상 용어가 되어 버렸다. TV광고에서도, 거리에서도 디지털이란 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디지털 시대¹⁾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는 디지털 기술이 매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의 디지털화는 한 매체의 생산물을 다른 여러 매체에서 활용가능 하도록 하며, 쌍방향 또는 대화형 매체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방송, 통신, 컴퓨터의 융합이 일어나고 그 대표적인 미디어로 인터넷이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윤의 원천으로 변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21세기는 20세기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패러다임이 교차하는 시대전환의 긴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도도히 밀려오는 디지털 시대가 위기로 다가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를 제공한다(김기욱, 1999).

현재 디지털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인 것이며 그런 변화의 흐름은 우리의 주거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거 생활의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현대 사회의 특징을 대변하는 용어로서 디지털 시대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 기술적 발전,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화와 관련된 기술적 발전을 부각시켜 사용하는 것이다. 정보화의 급진전과 방송, 통신, 컴퓨터의 융합, 멀티미디어의 등장 등은 모두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권태환, 2001:36). 따라서 정보화 시대와 디지털 시대라는 용어는 다르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 둘을 같은 개념이라 정의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시대의 사회변화

광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는 변화의 속도에 못지 않게 그 변화의 폭도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의 사회변동을 국가의 정책, 경제구조, 고용구조, 국제관계 등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²⁾

가. 자유화(liberalization)와 규제완화(deregulation) 정책

산업사회에서 정부는 국내시장을 보호하면서 전략적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경제 개입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성공적으로 결합시키면서 국민 복지 수준까지 향상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의 성장방식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철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및 기술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이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분양가 자율화,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완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나. 국가정보기반 정책

산업사회에서 도로나 철도가 담당했던 사회기반시설의 중추적 역할을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통신이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입각한 광대역 정보통신기반의 건설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 이윤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통신기반의 확충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정보고속도로 정책이다.

다. 경제구조의 변화와 정보기술산업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산업구조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경제활동에서 물질적 재화의 생산보다 비물질적인 서비스활동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서비스업의 비율이 1970년 당시에 이미 두 배에 근접하고 있으며 1990년에는 세 배로까지 증가했다.

라. 고용구조와 노사관계의 변화

현대사회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고용구조의 변화이다. 즉, 사회의 중심적인 직업

2) 권태환 외 2인(2000), 정보사회의 이해에서 '정보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특징을 요약한 것임'

이, 생산을 담당하는 육체노동자에서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정보관련 직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1991년)과 영국(1990년)에서는 정보 관련 직업인 경영자, 전문직, 기술직의 비율이 29.7%와 32.8%로 전체 직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측면을 보면, 새로운 노사관계는 기술 및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임금 구성에서 개인의 능력 차이를 중시하는 직능급의 비중이 높아지고 단체교섭도 기업별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

세계화란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범위가 일국적 단위를 넘어서 범세계적 단위로 전개되는 추세를 말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에 대해 해당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경제통합 또는 지역화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의 성격은 후기산업사회 혹은 탈 산업사회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으나 디지털 사회 역시 자본주의 내의 한 단계인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권 태환 2000:82).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자본주의 체제의 개조를 통해 나타난 기술혁신과 조직의 변화는 앞으로의 사회를 정보자본주의(informational capitalism)라고 규정한다(국민호,1998).

이러한 디지털경제 체제하에서는(KDI 경제정보센터, 2000:43)

첫째, 대리점, 소매점 등의 유통경로가 생략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직거래됨으로써 제조업체의 원가가 하락하고 유통업체의 재고비용이 감소하고,

둘째, 점차 소비의 개성화 내지 다양화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고 이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이 보다 다양하게 분화되며

셋째, 디지털 경제의 빠른 기술진보와 생산 및 소비방식의 변화로 기업의 조직과 고용관행이 변화되어 상용근로자보다 일용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능력별로 임금의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넷째, 소비자가 경제를 주도하게 되어 소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될 것이다.

이런 경제체제하에서의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온라인 상에서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양질의 풍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공급자간의 과다경쟁으로 가격인하가 초래될 것이며, 공급자들이 소비자 개개인과 실시간으로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소비자는 맞춤형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디지털 시대의 가족변화

이런 디지털사회에서 가족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저명한 미래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토폴러(Alvin Toffler)는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미래사회의 특징으로 가족구조의 변화를 규정한 바 있고 제임스 마틴은 그의 저서 "Telematic Society"에서 정보화 사회는 통신 기술이 혁명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인간의 생활은 상상을 초월한 변혁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가. 가족관계의 변화

정보화에 따른 가족간의 관계를 연구한 우리나라 연구 중 조정문(1999)은 가정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소원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나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갈등해소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부진·이해영(2000)은 인터넷이 가족문화에 상반되는 두가지 경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인터넷의 이용은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성원과 동일 공간내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외부집단과 연결됨으로써 각 가족구성원들을 고립시키는가하면, 다른 한편 가족성원 상호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도움을 줌으로써 가족성원들간의 유대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이중적 영향은 가족집단의 특성, 특히 가족집단이 갖는 의사소통의 원활함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 즉, 기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가족성원간의 상호관계가 우호적인 경우 인터넷이용은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기존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가족에서는 오히려 인터넷 이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 결과를 볼 때, 가정의 정보화는 어떤 가족에게는 의사소통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또 다른 가족에게는 의사소통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현아 외, 2001).

나. 노동신화 붕괴- 여성의 사회진출

현대사회에서는 남성중심의 혈연적 유대와 가계계승의 의미가 퇴색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된다. 과거의 여성의 지위는 취업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현재 여성의 직장의 진출이 눈부시며 직종도 다양해졌다. 한 예로 노동시간에도 시간제근무, 근무시간의 자유선택, 근무장소자유선택제등의 여러 가지 개선에 의해 이전과 같은 직종상의 남녀구별이 사실상 감소되었다. 또한 현재는 여성이 가정에서는

경제권, 교육권을 주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 등 사회교육기관에서 문화, 예술, 전문 분야에 대한 참여율이 남성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는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 관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사회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물로 이용되는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제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미혼인구 증가와 가족제도 해체

아시아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조사를 보면 결혼은 ‘언제’보다는 ‘왜’로, 배우자선택은 가문선택에서 ‘나’ 자신의 선택으로 바뀌었고, 자녀는 몇을 낳을 것인가보다 ‘왜’ 낳아야 하는가, 또 ‘결혼’은 싫지만 ‘어머니’는 좋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가족제도의 해체 현상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자료이다. 세계적인 현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결손가정증가, 결혼 기피현상은 우려할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주택 조사(1999. 12)에서도 15세이상 미혼인구는 인구 10명당 1명수준에서 3명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및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미혼인구 증가가 남자보다 컸다. 우리 가정에서 전통적인 고부갈등이 사라지고 있으며 오히려 성취욕이 강한 딸들이 미시족이 자녀에게 희생하기를 거부하고 시부모에게 그 역할을 떠넘기는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라. 노인 소외

노인의 역할 역시 과거의 가부장적 지도자에서 고독한 소외자로 위상이 저하돼 가족제도 회복에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그나마 동거하는 가족관계마저 부부중심, 자녀중심으로 바뀌고 모든 교양과 지식의 원천이 비디오, TV등 기계적 정보매체로 변질됨에 따라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력은 부족한데 수명은 연장되고 병고, 빈고, 고독고, 무위고로 자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이다.

김재은(1997)의 연구에서는 전통사회나 산업사회에서의 가족내 정보의 흐름은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달되며 세대를 거치는 동안 정보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정보사회에서는 가족원에게 그 통로가 개방되어 있고, 공통의 매체를 통해 3자간 상호유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가 공통 분배되는 상황에서 조부모나 부모의 정보독점으로 인한 권위가 상실되고, 오히려 새로운 첨단정보를 많이 가진 자녀들이 보다 더 많은 권위를 소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즉, 가족내 정보불균형은 가

족원간의 권위구조를 변화시키고 세대간 갈등과 소외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녀세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되면서 가족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통로가 변화되고, 모든 가족원이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족내 평등구조가 나타날 수 있지만 첨단정보를 많이 소유한 자녀세대와 그렇지 못한 부모세대간의 또 다른 정보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마. 육아의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지역공동체와 각종 생활공동체가 해체되거나 핵화되면서 가족은 점차로 도시 속에 고립되었다. 부부 취업의 증가, 더욱 빠른 사회변화, 이혼 등의 이유로 인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따위로 인하여 가족의 고립화와 기능 약화 현상이 디지털 시대에는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 안가지기(No Kids)나, 공동육아의 개념이 나올 것이며, 가족의 역할을 타아소나, 학교가 대신해야 할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부모들이 공동으로 놀이방을 만들어 서로 시간을 나누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맞벌이 부모들의 대책도 되며 형제, 자매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공동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 정보통신망을 통한 새로운 가족문화 형성

미래가족을 언급할 때 대체로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을 말한다. 몇 개의 형태로 규정짓기 힘들 정도로 가족구성이나, 규모, 혹은 가족형성 동기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각 가정의 고유한 문화는 pc통신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각 가정이 가지고 있던 은밀한 고민과 갈등들이 사회문제로서 쉽게 제기됨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혼 직전의 부부의 모습을 TV로 보여 주면서 그들의 고민을 엿보게 한다. 과거에는 치부를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던 가정이 이제는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답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한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디지털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나 성공하고 있다. 가족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더욱 그리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통신망의 연결을 통하여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확대가족의 형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성원은 외부통신망을 통한 외부와의 지속적인 접속으로

소속되어 있는 가족집단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개성에 맞는 생활영역을 찾아 개별적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창출할 수도 있다.

사. 청소년 문제 대두

청소년 문화는 기성세대의 권위와 횡포에 대한 저항문화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90년대부터는 이들의 노련한 컴퓨터 조작기술과 자유분방한 호기심이 어울리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세계에 널려진 광대한 정보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쳐 기성세대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탐색하면서 왕성한 정보흡수력과 소화력, 창조력을 과시하는 선도 세력으로 자리잡고 경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자기 정체성에 근거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의 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기도 한다(예: 엽기문화). 남과 똑같은 것을 거부하며,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지게 되며, 인터넷의 사용으로 대면적 관계보다는 대중관계로서의 변화로 인간과의 접촉은 줄어들기 때문에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어 인간의 고립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사이버 펑크 족과 인터넷에서 섹스 파일을 탐색을 낙으로 삼는 관음족 등 도덕적 자제력을 잃고 일탈행위로 흐르는 일도 많다.

4. 디지털 시대의 주거생활

디지털 시대에는 주거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스누출, 누전, 실화, 산소결핍 등으로 생기는 재해를 미리 막기 위한 자동통보시스템이 보급되어 경보음과 이상 발생부위 표시로 알려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방재센터로 자동적으로 통보해준다.

비디오, 팩스 등으로 승차권, 입장권, 항공권, 숙박 등의 예약을 가정에서 할 수 있고,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자료를 안방에서 보고, 전자 신문을 통해 주요한 뉴스를 훑어 보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뉴스는 유료채널을 통해 입수한다. 고도로 정보화가 진전되면 ISDN으로 워크스테이션을 연결하여 조사하고 기획하는 등 지적직종의 근로자들과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출근할 필요가 없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가. 디지털 주택과 사이버 아파트³⁾

3) 주택시장 및 업계에서의 정보화 아파트의 개념인 사이버 아파트라는 용어는 1998년 초에 등장하여 1999년 하반기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 전략으로 급속히 알려지고 있다. 이들 사이버 아파트

디지털 시대에는 홈오토메이션 (HA)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디지털 주택, 사이버 아파트가 실용화, 상용화된다. HA는 가정내 기기의 시스템화에 의하여 주거생활의 자동화, 고기능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수단을 총칭하는 의미이다. HA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은 개개의 전자기기들이 발휘하는 단순기능에 더하여 주택온도조절, 방범, 방재, 홈쇼핑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상호연결하는 정보전송로인 HBS(home bus system)의 존재이다. HBS란 HA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어하여 개별 또는 각 하위체계를 상호접속하는 가정내 네트워크를 의미한다(주거학연구회,1999). HA시스템은 크게 가정 보안시스템(home security system), 가정 제어시스템(home control system), 가정 정보시스템(home information system)으로 분류된다. 아파트의 경우 통합 관리 시스템도 이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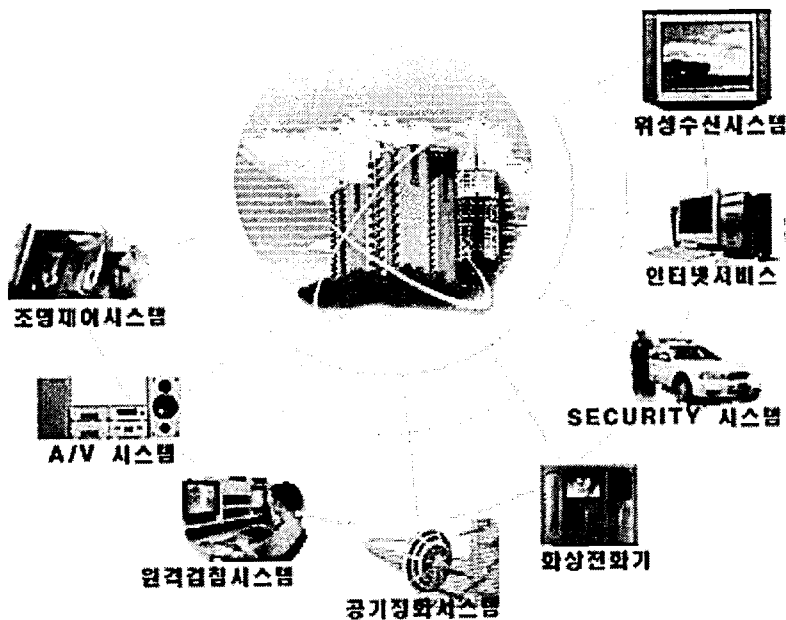


그림 1 : 홈오토메이션 (자료: <http://www.dosigebal.co.kr/homeauto.htm>)

란 인터넷망과 가정자동화 시스템을 완비한 리모컨과 컴퓨터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멀티미디어 시대를 고려하여 광케이블 등을 설치하는 등 첨단 정보시대에 맞는 정보화 설비를 갖춘 아파트, 광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화상 전화, 전자기기 제어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미래형 아파트, 사이버 커뮤니티와 현실 커뮤니티를 공존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는 아파트, 입주한 가구 전체가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아파트를 총칭하고 있다(김한수 외2인, 2001).

가정 보안 시스템:

최첨단 무인전자경비시스템과 지문인식 혹은 화상인식으로 출입을 제어하는 첨단기능으로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가정 제어 시스템:

집안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이나 조명등을 한곳에서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할 수 있는 중앙제어 시스템과 방문객 확인기능, 각 세대와 관리실과의 칼라화상 전화기능, 방재기능 등 다양한 홈오토메이션 설치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집 밖에서 집안의 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과 외부인으로 부터 근접을 막고 일괄검침과 단전, 단수,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비실에서 원격 검침을 하는 편리한 시스템이 있다.

가정 정보 시스템:

초고속 정보통신 광케이블 설치로 인터넷, 화상회의, 홈쇼핑, 홈뱅킹, 주문형 비디오(VOD)⁴⁾ 등 첨단 멀티미디어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된다. 또한 세계 유명방송과 위성교육방송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위성수신시스템 설치로 21세기 정보화 생활을 실현한다.

아파트 통합관리 시스템:

아파트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관리비 통지 및 내역 조회, 단지정보, 유실물 정보, 토론마당, 베틀시장 각종 동호회, 공지사항, 부녀회 소식 등을 제공한다. 또 집이 비어 있을 때 누가 방문했는지, 자녀들이 안전하게 있는지 화상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아파트 출입, 주차, 설비 제어 등의 관리 시스템이 제공된다.

나. 재택근무 확대와 공간요구

산업사회이후 단순한 주거기능 만을 수행하였던 주택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업무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기능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른 주택은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뿐 아니라 "24시간 생활센터"로 그 개념이 바뀌어 갈 것으로

4) 주문형 비디오는 쌍방향성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미디어와는 구별된다. 전화국에 설치된 대형 컴퓨터(비디오 서버)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영화 및 정보를 수용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문형 비디오이다. 다른 사람이 빌려갔을까 봐 조바심 낼 필요도 없이 최신 비디오를 볼 수도 있고, 쇼평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드라마나 뉴스를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가장 대중화된 미디어인 전화의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는 점이 주문형 비디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측되고 있다. 컴퓨터 보급률이 증가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주택 내 통신 기능이 확대되었고 사무실이외에도 자유로이 업무가 가능하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근무체제로 인정할 수 있게 하려는 관련 법안이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에 오르고 있으며 새 노동법안에는 틀에 박힌 근무형태를 강요하지 않는 “재량근로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사무실 비용절감,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재택근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등 재택근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신화경, 2001).

특히 재택근무 중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틀에 박힌 근무환경에서 탈피, 자유직종을 추종하는 소규모 그룹에 의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SOHO를 포함한 재택 근로자가 6년간 50% 정도씩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1997년 말 현재 80만명 수준으로 전체 사무직 중 4.7% 수준에 이르고 있다(주거학 연구회,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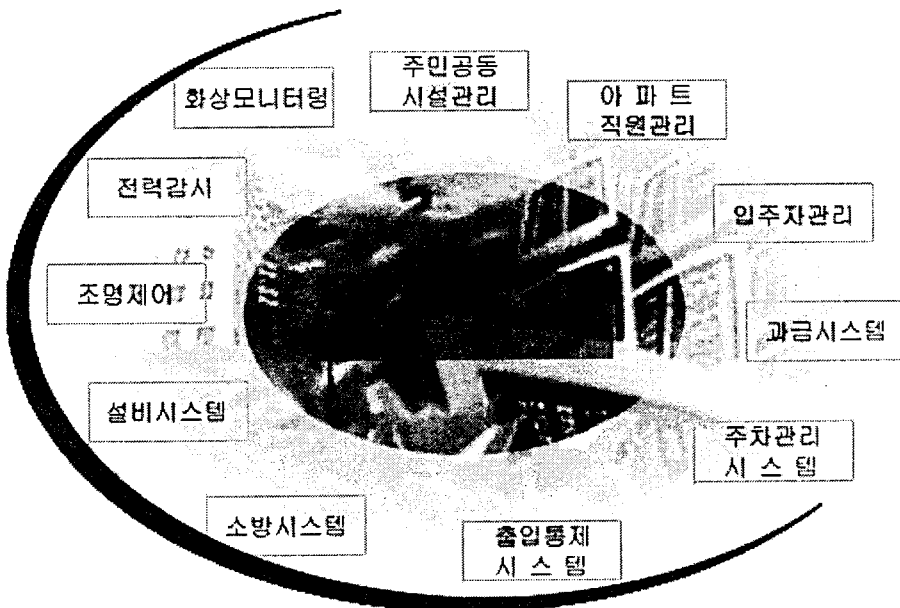


그림 2 : 아파트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 <http://www.dosigebal.co.kr/aparttonghab.htm>)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 그 장소는 기존 주택 내부, 기존주택에 따로 근무 할 수 있는 공간이 별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혹은 기존주택도 회사도 아닌 제 3의 장소(테레위

크 센터)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주택 내에 재택근무 공간을 추가하는 경우 동일 주거 내에서 주거의 기능과 업무의 기능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공간의 규모 및 위치, 형태가 중요한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업무공간과 기존 주거 기능을 위한 공간이 물리적으로나 사회심리적으로 서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택근무형 주거 계획의 기본원칙이 된다(Meade, 1993).

기존 주택 내에 재택근무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일상 주거기능과의 구분의 구분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방법은 독립된 실을 설치하는 완전 독립형, 파티션이나 가구 등을 이용하여 공간의 일부를 개방하는 부분 개방형, 주거공간 한쪽에 작업대를 설치해 놓는 개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Zimmerman,1996).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택근무 희망자에 대한 연구(신화경, 2001)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내에 재택근무 공간을 독립된 방이나 서재와 같이 주거공간과 물리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주택근무 공간의 규모로는 3-4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리고 재택근무 공간의 개방정도는 완전 독립형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았다.

다. 사이버⁵⁾ 주거문화

디지털 시대의 삶은 컴퓨터 웹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이버 상의 생활을 창출하고 있다. 2001년 3월 말 현재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는 2천1백만명으로 가상 현실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문화가 우리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가상 공동체(virtual community) 형성 :

현재는 주로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물리적 세계의 아파트에 네트워크화 된 환경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형 웹사이트로 구매, 정보 교환을 통해 온라인 상의 교류를 하다가 이러한 친분이 오프라인의 동호회나 각종 모임 형태로 발전된다. 인터넷을 통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과 정부, 사업,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증진되는 것을 이용하고, 또한 거주지역의 광고, 사업, 지역사회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김 현수 외 2인, 2001).

매우 발전된 형태의 가상공동체 사이트의 경우는 가상세계에서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사업을 즐길 수 있는 3차원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차원으로 구현된 가상의 세상에서 자신의 집을 갖고 자신의 분신(avatar)을 통해 도시내의

5) 사이버(cyber)는 그리스 말로 항해를 의미하는 'kuber'에서 온 말로, pc를 통해 수많은 사이트들을 마치 항해하듯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할 수 있으며, 클럽을 열어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나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의해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즉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공동체 구축은 물리적인 주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이버 주택 상담:

디지털 시대에는 더 이상 복덕방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여러 주택관련 사이트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지리적 제한이 없이 주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정보 사이트관련에서는 부동산경기, 분양, 정책, 법령, 개발, 업계동향, 불법사례로 분류하여 제공하며, 부동산속보 및 부동산상식, 중개, 부동산컨설팅, 분양상품에 관한 최근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아파트임대, 단독주택임대, 상가임대, 사무실/오피스텔임대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 주택관련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부금, 대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대한가정학회, 1999).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사이트들은 대체로 가구나, 실내디자인 소품 등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가구를 인터넷상에서 구입하거나 자신의 주택을 디자인하기 위해 원하는 품목, 스타일, 마감상태, 예상 가격등을 입력하면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고객에게 적절한 아이템이 제시된다.

5. 맺음말: 디지털 시대의 주거 선택의 방향

사회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광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 디지털 시대는 우리의 주거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대에 주거 선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의 사회변화에 대해 논의해 온 것을 토대로 주거를 선택할 때 새롭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가. 선택이 아닌 필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는 디지털 사회는 앞으로 5년의 변화조차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가 벅잡기도 하다. 그러나 디지털 사회는 우리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사회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깊숙히 이 사회에 들어와 버렸으며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해야 하는 입장임을 알아야 한다.

나. 소유가 아닌 거주

더 이상 소유는 필요하지 않다.

물건은 빌려 쓰고 인간의 체험까지 돈을 주고 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 (리프킨, 2001)

산업시대는 소유의 시대였지만 변화와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하다. 기업들도 자본설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필요한 물리적 자본을 빌려쓰고 단기 비용이나 경상비로 처리한다. 리스산업이 발달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추세이다.

과거에는 아직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 독신자, 신혼부부가 주로 이용해 오던 미국 임대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여 전통적인 주택 소유에 수반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임대 아파트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현재 미국 가구의 33%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리프킨, 2001: 184).

우리나라도 점차 주택임대사업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세를 살았지만 상승지향적인 집단은 삶의 질을 끌어 올리기 위해 소유 보다는 임대를 선택하는 추세이다.

다. 첨단주의와 생태주의의 조화

홈오토메이션 (HA)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디지털 주택, 사이버 아파트가 실용화, 상용화되는 첨단적인 디지털 시대인 21세기는 또한 환경의 시대, 생태학의 시대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시대가 고도로 발달된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경이로운 경제적 부를 향유하려는 시대이지만 지금부터는 우리의 사고가 인간중심적인 것에서 생태중심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의 초점을 물질적인 풍요에서 정신적 풍만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박 이문, 2001).

여기서 생태주의적 가치는 첨단기술과 항상 이율배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독일 바이마르시의 상업은행 빌딩은 초첨단의 인텔리전트 빌딩이 얼마나 생태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기존의 아파트와 차별화된 요소로서 제시하는 내용이 바로 첨단 주택 설비의 도입과 친환경적 요소의 강조인 것이다.

라. 다양한 주거의 탐색

디지털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남과 똑같은 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사고를 중시하는 디지털 시대의 사고 방식은 소비품목에 있어서도 통일성과 체계성이 없는 브리콜라주(bricolage)⁶⁾ 스타일이 주류이다. 주거 소비 스타일에 있어서도 어떤 고정된 의미를 주장하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영위해 가는 새롭고 자유로운 삶이 방식이 선택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규제 철폐로 주택의 공급도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풍부한 주택 정보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주거의 탐색이 가능하다.

마. 공유의 개념이 강조된 주거공동체 선택

인터넷의 사용으로 대면적 관계보다는 대중관계로서의 변화로 인간과의 접촉은 줄어들기 때문에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어 인간의 고립성은 더욱 심화될 디지털 시대에 강조되는 개념이 공유의 개념이다.

더우기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로 인한 공동육아에 대한 기대, 적은 자녀수로 인한 이웃사촌의 필요성, 노인소외문제의 해결과 같은 디지털 사회의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공유주택(cohousing)이다.

산업화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나라들에서 많이 보여지는 공유주택은 디지털 시대의 대안주택으로 매우 적절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주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마. 재편되는 상업주의에 대한 경계

CID(common-interest developments, 공동 관심 단지)라는 주거 공동체가 미국전역에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 단지는 개인이나 공공이 소유하고 관리하던 기존의 공동체와는 달리 전적으로 상품화된 생활공간으로 CID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오랜 세월 동안 공동의 시민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상품화된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단지이다.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업주의가 철학 부재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게 된다. CID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신의 스타일이나 거주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관리의무등을 뒤로 한 채 제공되는 상품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하지 않다.

6) 브리콜라주란 서로 별 연관성이 없는 요소들을 이리저리 긁어 모아 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스타일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권태환,2001)

참 고 문 헌

- 국민호(1998). 미래 사회환경의 변화. 미래 사회환경과 가정학. 한국가정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권태환 외 2인 편(2000).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M&B
- 김기옥(1999). 정보사회와 생활과학: 도전과 기회. 52차 대한가정학회 발표논문집: 29-37
- 김재은(1997). 정보화와 가족내 권위구조, 한국가족학회, 간국가족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한수(2001). 아파트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한국주거학회지 12(3): 85-96
- 김한수 외 2인(2001). 아파트 정보화의 실태와 주민의식. 한국주거학회지 12(1): 21-32
- 대한가정학회(1999), 생활정보와 인터넷
- 박부진, 이해영(2000). 인터넷의 생활화와 가족문화의 변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이문(2001). 21세기의 화두: 생태학적 세계관. 한국생활환경학회지 8(1)
- 신화경(2001). 재택근무 희망 근로자의 재택근무 공간 특성에 대한 선호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2): 87-96
- 이현아, 이기영(2001). 가정정보화가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인터넷사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1): 33-47
- 이현아(2001).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명은 외 2인(2001). 웹사이트에 나타난 디지털 라이프의 특성 분석 12(2): 181-190
- 조명은, 윤복자(2000). 신세대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선호에 관한 연구 11(1): 79-88
- 조정문 외(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집.
- 주거학 연구회(1999). 새로 쓰는 주거문화. 교문사
- KDI경제정보센터(2000). 디지털경제와 시민생활
- Meade, Jeff(1993), Home Sweet Office: The ultimate out-of-office experience, Ptinceton,NJ:Peterson's.
- Zimmerman, Neal(1996). Home Office Design. NY:John Wiley & Sons, Inc.

<http://www.dosigebal.co.kr/aparttonghab.htm>

<http://www.dosigebal.co.kr/homeauto.htm>